

르브론 제임스, 도움 9,000개 돌파 AP 선정 '최고 남자 선수'도

르브론 제임스(35·LA 레이커스)가 통산 9,000개 어시스트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댈러스와의 서부콘퍼런스 상위권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제임스는 지난 29일 LA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댈러스와의 안방 경기에서 13득점, 13어시스트로 레이커스의 108-95 승리를 이끌었다.

제임스는 2003~2004시즌부터 이날 경기까지 통산 9,009개의 어시스트를 쌓아 만 35세 생일(12월 30일)을 하루 앞두고 NBA에서 개인 통산 9,000어시스트를 돌파한 9번째 선수가 됐다. NBA 역사상 9,000어시스트, 9,000리바운드를 동반으로 기록한 선수는 제임스가 유일하다. 이날까지 제임스는 9,120개의 리바운드를 잡았다. 3만3,347점을 올린 제임스는 NBA에서 유일무이한 3만 득점-1만 리바운드-1만 어시스트 고지를 노린다.

'랍당탕탕(르브론+우당탕탕)'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상대 코트를 휘젓는 플레이를 즐기는 제임스는 이번 시즌에는 NBA 전체 어시스트 1위(경기당 10.8개)를 기록하며 동료들의 득점 기회를 살려주는 농구를 구사한다. 2003년 데뷔 후 어시스트 1위 경험이 없는 제임스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어시스트 타이틀을 노린다.

한편 제임스는 AP통신이 선정한 10년간 최고의 남자 운동선수로 선정됐다.

제임스는 미 프로농구(NBA)를 대표하는 스타로 2003년 데뷔해 올해까지 17시즌 활약했다. 특히 2010년 이후 정규시즌과 NBA 파이널 최우수선수(MVP)를 각 3회 수상했다. 또 마이애미 시절 2회(2012·2013), 클리블랜드 시절 1회(2016) NBA 파이널 우승을 이끌었다.

2위에는 풋볼 스타 톰 브래디(42), 3위는 우사인 볼트(육상), 4위는 리오넬 메시(축구), 5위는 마이클 펠프스(수영)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순위는 AP통신 회원사 스포츠 기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박인비의 메이저 3연승 최근 10년간 LPGA 최고의 순간

박인비(31·사진)의 메이저 3연승이 최근 10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고의 순간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지난 30일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미국 골프채널은 전날 최근 10년간 LPGA 투어 최고의 순간을 꼽는 결산 기사에서 박인비를 박인비를 제일 처음으로 언급하며 "역대 네 번째로 한 시즌에 메이저 3승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박인비는 2013년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세 번째 메이저 대회 US여자 오픈까지 석권하며 메이저 3연승을 달성했다. 메이저 3연승은 LPGA 투어 역사상 두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기록이다.

골프채널은 "박인비는 2010년 이후 LPGA 투어 19승 중 18승을 거뒀다. 그 중에는 메이저 6승이



포함됐다."면서 "LPGA 투어나 PGA 투어에서 박인비만큼 최근 10년간 메이저 우승이 많은 선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박인비는 106주간 세계 랭킹 1위를 지냈다."며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한편 최근 10년 간 최고의 선수에는 PGA 투어에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브룩스 썬

카(미국), 타이거 우즈(미국), 조던 스피스(미국), 더스틴 존슨(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필 미켈슨(미국), 버바 왓슨(미국), 마틴 카이머(독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LPGA 투어에서는 박인비가 1위에 오른 가운데 2위에 쟁야니(대만), 3위에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올려놨다.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이 그 뒤를 이었고, 렉시 톰프슨(미국), 평산산(중국), 크리스티 커(미국),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브룩 헨더슨(캐나다) 순이었다.

한국 U-20 대표팀 FIFA 선정 '2019 가장 놀라운 팀'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해 열린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한국의 20세 이하(U-20) 대표팀(감독 정정용)을 '2019년 가장 놀라운 팀' 중 하나로 선정했다.

FIFA는 지난30일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이변을 일으킨 12개 국가대표팀을 선정해 소개했다.

FIFA는 지난해 여름 폴란드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U-20 대표팀을 이 가운데 한 팀으로 뽑았다. FIFA는 한국의 결승 진출과 함께 '막내 형' 이강인(발렌시아)이 대회 최우수선수에 해당하는 골든볼을 수상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했다.

한편 FIFA는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베트남 대표팀도 지난해 이변을 일으킨 12개 국가대표팀 중 하나로 선정했다. FIFA는 베트남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8강에 오른 것을 높게 평가했다. 박항서 감독은 얼마전 베트남 남자축구를 60년 만에 동남아시아게임 우승으로 이끌었다. 또한 베트남은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에서 아랍에미리트와 태국 등을 제치고 조 1위에 올라있다.

이밖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제패한 카타르,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에서 정상에 오른 알제리, 사상 두 번째로 여자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네덜란드 여자 대표팀 등도 12팀 안에 들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 감사대행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